

2025년 1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안지연	1/5	[뉴스17]5G보다 비싼 LTE?...내년 '통합 요금제' 나온다 [뉴스특보]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키웠나...논란 계속	
임윤주	1/12	[뉴스특보]'계엄 사태' 한달...45년만의 선포에서 체포영장까지 [뉴스특보]체포영장 집행 출발부터 중단까지...긴박했던 5시간 반	
최미연	1/19	[뉴스특보]이르면 내일 새벽 재집행...형사 1,200명 최대 3일 투입 [뉴스리뷰]경호처 "불법 집행에는 매뉴얼대로"...또 저지 예고	
김홍태	1/26	[뉴스특보]5시간 가까이 심사...윤대통령, 총 45분간 직접 발언 [뉴스특보]현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1/5(일)	안지연	통신비는 소비자들의 필수 고정지출비용 중 하나로 가게 살림살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정부가 가게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전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을 통해 통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손 본 결과, 5G 요금제의 세분화로 중저가 상품이 신설되었습니다. 통신사들도 올해부터 요금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28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통신사들의 통합 요금제 출시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부터 통신사가 새롭게 출시할 통합 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보도는 LTE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과 통합 요금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요금제를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보도는 요금제 변화를 둘러싼 이슈를 잘 정리해 전달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도는 통합 요금제 도입의 배경을 언급하며 통신비 부담 완화 체감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한 통신사와 전문가의 설명, 구체적인 수치 등을 통한 설명이 뒷받침되었다면 관련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쓰겠습니다.

		한,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합 요금제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과 반응 등을 반영해 통합 요금제 도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혜택 등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2025 1/12(일)	임윤주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45년 만의 계엄령은 2시간여 만의 국회 결의안 의결로 다음날 새벽에 해제됐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취임 후 2년 7개월, 즉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넘긴 시점에 탄핵소추 된 것입니다. 이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거부권 행사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국정 운영의 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까지 대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끝까지 싸우겠다'며 재기 의지를 밝히는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일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간략하게 사건을 돌아보는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부터 총리를 거쳐 현재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하기까지를 정리하고,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덧붙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자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향후 관련 내용 다시 다루게 될 때 그래픽 등 활용해서 주요 경과를 정리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료화면과 함께 제공하였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와 주요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면, 긴박했던 지난 한 달이 조금 더 쉽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형인 사건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소식들이 정리되어 전해질텐데요.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등, 현재의 보도가 향후 중요한 사료가 될 것임을 양지하여 보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1/19(일)	최미연	지난 13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기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 시설과 11개 국적 항공사의 안전 체계를 이달 말까지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동일 기종 보유 항공사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마쳤으며,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7개 공항에서 9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서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구조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서는 콘크리트 기초 일부가 땅 위로 돌출돼 있었고, 제주공항에는 단단한 H형 철골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	합동점검 이후 결과 추가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공기 안전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정부 발표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개선책 등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를 목표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여객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15개 공항의 합동점검 소식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공항 안전 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로, 두 기사 모두 해당 문제를 신속히 보도하여 공공의 관심을 반영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점검 이후 개선된 안전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인 예상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둔덕 확인 보도에서 정부의 개선 방안이 "방위각 시설 개선"으로만 언급되어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개선 작업의 기술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의 두 보도 모두 공항 안전 점검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적시에 다뤄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지만, 더 심층적인 분석과 맥락 연결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 분석을 추가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입체적으로 다룬다면,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1/26(일)	김홍태	지난 21일 뉴스투나잇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며,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파원은 그곳이 백악관과 의회의사당 그리고 실내 행사가 열리고 있는 아레나와 모두 근접한 워싱턴 한복판이라면서, 주요 진입로는 여전히 통제돼 있고 건물 옥상에는 일	

	<p>부 저격수들도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미국 정치의 주요 전환점을 알리고 있는데요, 생생한 현장 분위기 전달과 함께 주요 정책 공약을 요약하여 시청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행정명령 구상의 배경과 목표는 앞으로 보도를 통해서라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와 불법 이민자 송환 조치가 미칠 영향과,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그린 뉴딜과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는데, 이로 인해 환경 정책이나 에너지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멕시코만 명칭 변경이나 파나마운하 회복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비판적 시각도 있었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및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약이 취임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배경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p>	<p>같은 기사들을 통해 짚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다른 기사들을 통해 이민자 단속과 한반도 정책,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전망 등의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루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1. 05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8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통신비는 소비자들의 필수 고정지출비용 중 하나로 가게 살림살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전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을 통해 통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손 본 결과, 5G 요금제의 세분화로 중저가 상품이 신설되었습니다. 통신사들도 올해부터 요금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28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통신사들의 통합 요금제 출시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부터 통신사가 새롭게 출시할 통합 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월평균 가구당 통신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12만 5천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초 5G 요금제를 세분화해 중저가 상품 신설로 5G 가입자 약 620만 명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LTE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통신사들이 올해부터 LTE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등 개편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통신3사가 5G와 LTE의 구분을 없앤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저가 5G요금제보다 저렴한 3만 원 안팎의 요금제의 등장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LTE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과 통합 요금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요금제를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보도는 요금제 변화를 둘러싼 이슈를 잘 정리해 전달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도는 통합 요금제 도입의 배경을 언급하며 통신비 부담 완화 체감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한 통신사와 전문가의 설명, 구체적인 수치 등을 통한 설명이 뒷받침되었다면 관련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합 요금제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과 반응 등을 반영해 통합 요금제 도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혜택 등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는데요, 이후 활주로 주변 구조물 배치로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30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사고 이후 해당 구조물의 설치 위치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설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무안 공항 활주로는 국제 규격에 따른 최소길이를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31일 뉴스에서는 무안 공항 설계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항공기 파일럿은 특이한 공항 설계를 많이 봤지만 이번 것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했고, 항공 안전 컨설턴트는 사고기의 활주로 착륙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며,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활주로 근처 구조물의 배치가 국제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두 보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보도는 시설물 설치와 관련 논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했고, 이후 보도에서는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공항 설계와 구조물 배치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와 항공 안전 강화와 국내 공항 설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 공항 설계와 운영 등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부른 판단이나 불필요한 오해, 확대해석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따라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포함해 시청자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 구현을 내걸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른바 사이다식 사적 제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일부 유튜버들이 정의구현을 내세운 사적 제재 활동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고, 일부 가해자가 직장을 잃는 사례가 발생한 점과 잘못된 신상 공개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 부작용을 다뤘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추적하던 유튜버의 활동 중 도주 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도 소개했는데요, 보도는 이러한 사적 제재 활동이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린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인 유튜버가 소녀상을 모욕한 것에 대해 일부 유튜버들이 하나의 게임처럼 사적 제재를 가하며 구독자들의 후원금을 유도하는

악순환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개인에 의한 사적 제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자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과 공적 제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일부 유튜버들이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례의 증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들의 사적 제재 활동이 법적 한계를 넘어서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림과 동시에, 정의구현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보도는 유튜버들의 이러한 활동이 특정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 책임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법적 책임의 강화 등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와 해결책 마련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적 제재 신뢰의 회복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콘텐츠 수용자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콘텐츠의 소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책임 등을 언급해 올바른 콘텐츠 소비 문화 조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강조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시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계속 근로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휴직 기간이나 급여 등의 문제는 이 제도의 사용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전10시 뉴스에서는 육아휴직을 포함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먼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의 확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1년 휴직 기준 최대 2,31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10만 원 늘어나고 급여 전액은 휴직기간 중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육아휴직제에서는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는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지급은 지난해 보다 170원 올라 1만 30원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등 고용정책 변화에 대해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정책들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수치와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정책의 주요 변화내용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정책 시행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 환경과 육아를 하는 가정의 복지 향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덧붙여

주었다면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예측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은 꿈 같은 이야기로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함께 다뤘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1. 12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8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줍니다. 어느새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해가 바뀌고 한 달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를 중심으로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45년 만의 계엄령은 2시간여 만의 국회 결의안 의결로 다음날 새벽에 해제되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취임 후 2년 7개월, 즉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갓 넘긴 시점에 탄핵소추 된 것입니다. 이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거부권 행사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국정 운영의 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까지 대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 겁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전개되고 있는데,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법원에선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집행을 위해 관저에도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끝까지 싸우겠다'며 재기 의지를 밝히는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일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간략하게 사건을 돌아보는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부터 총리를 거쳐 현재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하기까지를 정리하고,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덧붙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자료화면과 함께 제공하였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와 주요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면, 긴박했던 지난 한 달이 조금 더 쉽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형인 사건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소식들이 정리되어 전해질텐데요.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등, 현재의 보도가 향후 중요한 사료가 될 것임을 양지하여 보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포영장 집행일의 모습을 전한 <뉴스 특보>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가 뜨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생수와 방한용품 등을 차에 실었을 뿐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한 영장 집행, 관저 인근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 최소화를 위해 평일 오전 이른 시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저 주변으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나왔고, 경찰

도 기동대 45개 부대와 경력 2,700명을 투입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체포팀은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를 시작하였고,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경호처와 협상 끝에 1차 저지선인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못해 다시 경호처의 2차 저지선에 가로막혔습니다.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물리적 충돌 등 현장의 안전을 우려한 공수처는 오후 1시 30분 영장집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해당일에 많은 국민들이 TV나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하고 뉴스를 지켜봤을텐데요. 집행 출발부터 많은 취재진이 생생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보도 뿐 아니라 집행 출발부터 중단, 그리고 중단 이후까지도 다양한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화면 등을 통해 그 노고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본 보도는 5시간 반의 상황을 간략하지만, 긴박함이 전해지도록 잘 정리했는데요. 구체적인 타임라인 정리는 물론 해당 시간에 맞는 현장감 있는 자료 화면 등이 제공되었고, 자료화면 역시 다양한 각도와 측면을 담아 생생함을 더했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계기로 다시금 주목받는 준 실명제에 대해 전한 <뉴스 프라임>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도를 넘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악의적인 표현과 비방은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의자 1명을 검거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도 모니터링과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격 살인', '손가락 살인'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단 이번 참사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범죄로 검거된 건수는 2021년 1만 7천여 건, 2022년 1만 8천여 건, 2023년 2만 390건으로 증가세입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준실명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악플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댓글 작성자의 전체 아이디와 IP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본인인증을 마친 회원만 글을 쓰게 하거나, 몇 십만 원 수준에 불과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최근 벌어진 대형 참사에 온라인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본 보도는 대안으로 준 실명제에 대해 주목하여 전했습니다. 국가에도기간을 운영할 만큼 국가적인 재난에 악성 댓글이 넘쳐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는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공한, 공론화 기능을 수행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준 실명제가 주목받았던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덧붙였다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 실명제 논의는 지난 2000년 대 후반부터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1년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폐기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전달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참사

를 계기로 저가 항공에 대해 보도한 <뉴스 특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지만, LCC의 안전 역량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LCC가 고시한 여객기 1대당 정비 비용은 에어부산 79억 원, 제주항공 53억 원 등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16억 원, 124억 원인 것과 차이가 큼니다. 반면 여객기당 월평균 가동시간은 반대의 모습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제주항공 418시간인 반면, 대한항공은 355시간으로 집계했습니다. 정비 인력도 문제로, 항공기 한 대당 정비사 수는 대형항공사의 경우 16명 수준인 데 반해, LCC는 그보다 60% 정도 적은 10명 안팎에 그칩니다. LCC 업계가 정비 인프라와 인력 등 안전 분야 투자를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대형 항공사의 예산을 따라잡기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LCC 업계 전반을 돌아보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정비 비용, 월평균 가동 시간, 정비 인력이나 정비 예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이면 좋았을 부분은, 보도 중간에 인용된 전문가 인터뷰 내용인데요. 전문가는 지난 3년 동안 인력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짐작컨대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구조조정 등이 그 공백의 배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인력 부족의 배경에 대한 분석이 더 덧붙여졌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공개된 오징어게임2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센터> 살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베트남 전쟁이 언급된 장면을 두고 베트남 현지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오징어 게임2'에 대한 논란을 인지하고, 영화법 위반 여부를 검토·평가 중이며 심의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배우 강하늘이 연기한 캐릭터 대호가 자신은 해병대로 군 복무를 했고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였다고 밝히자, "아버님이 훌륭하시네"라는 대사가 나온 부분입니다. 해당 장면을 두고 베트남 누리꾼들은 "베트남 전쟁을 정당화하는 대사"라고 지적했습니다. K-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위상이 높아질수록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문화다양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선출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콘텐츠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콘텐츠 제작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응만을 보여주기보다는 베트남에서 논란이 된 이유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전하였다면 더 의미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01. 1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8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

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 간 긴장이 고조된 한 주였습니다. 서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체포 작전과 방어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도 했는데요, 물리적 충돌 우려와 정치적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국정 안정화는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찰은 광역수사단 지휘관들과 공수처 검사들이 참석한 3차 회의를 통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이 회의는 집행 준비의 최종 점검 단계로, 경찰은 1,20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최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호처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호 체계의 와해와 집행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체포 작전에 앞서 경찰은 철저한 대기 태세를 유지하며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상태를 갖췄다고 알려졌습니다. 경호처의 강경 대응에 대한 연합뉴스 TV의 보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지만, 물리적 충돌은 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충돌에 대한 부담이 감지되지만, 강경과가 지휘를 잡고 있어 강경 대응 가능성도 남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체포 대신 자기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으며,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간 갈등이 2차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졌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장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두 리포트는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경찰, 공수처, 경호처 간 갈등과 준비 상황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사건의 전개와 긴박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특히 경찰의 대규모 작전 계획과 경호처의 강경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돋보입니다. 대통령 체포라는 이례적 사건의 중요성을 신속하고 폭넓게 반영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사건의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경찰 작전의 법적·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경호처의 매뉴얼 대응 허용 범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긴장감을 부각했으나 실제 충돌 발생 시의 구체적 시나리오나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긴장감을 조성하는 대신, 갈등을 해결할 대안이나 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보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새해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2025학년도 신입생 교육

계획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수련 특례 방침을 임시방편이라고 일축하며 구체적인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시사하며, 증원뿐만 아니라 감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정원 감원이 현실화될 경우 고3 수험생의 역차별 논란 등 추가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수련 특례 방침을 비판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2025년 의대 교육이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내놓아야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 등 대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의협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두 기사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의료계의 요구 사항과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강조하고, 협의체 구성 계획을 언급하며 향후 협상 전력을 조명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정원 재검토 이유와 정책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전공의 수련 특례 방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상황을 넘어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낸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시청자들에게 더 큰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군 2명이 러시아 전장에서 생포되면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다른 국제적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 안보와 외교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북한의 파병이 앞으로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력하여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포된 북한군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군 중 1명은 조사에서 작년 11월 러시아로 이동해 군사훈련을 받은 뒤 전장으로 배치되었으며, 처음에는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전투 중 다수의 병력이 손실된 상황에서 나오되어 며칠 동안 굶주린 상태로 생포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인들이 귀순을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헌법상 북한군인들이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귀순 요청이 있을 시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군 병사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관계당국이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소통 중이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이번 사건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문제로 확대 해석하여 북한군의 전쟁 참여가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도 했

습니다. 이에 비해 연합뉴스 TV를 비롯한 국내 언론에서는 사건의 정치적 맥락을 더욱 부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적 함의와 외교적 파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교부의 귀순 가능성에 대한 언급 보도는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조명하여 향후 대응을 중심으로 한 관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의 국제적 의미와 인권 문제를 추가로 조명하고, 외신 보도와 국내 정치적 맥락을 비교하여 보완한다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 항공사의 안전 체계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안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기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 시설과 11개 국적 항공사의 안전 체계를 이달 말까지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동일 기종 보유 항공사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마쳤으며,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7개 공항에서 9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서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구조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서는 콘크리트 기초 일부가 땅 위로 돌출돼 있었고, 제주공항에는 단단한 H형 철골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여객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15개 공항의 합동점검 소식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공항 안전 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로, 두 기사 모두 해당 문제를 신속히 보도하여 공공의 관심을 반영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점검 이후 개선된 안전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인 예상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둔덕 확인 보도에서 정부의 개선 방안이 "방위각 시설 개선"으로만 언급되어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개선 작업의 기술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의 두 보도 모두 공항 안전 점검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적시에 다뤄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지만, 더 심층적인 분석과 맥락 연결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 분석을 추가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입체적으로 다룬다면,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01. 2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87회 - '연합뉴스TV

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택입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8일 뉴스특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면 4시간 50분동안 공수처와 윤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에선 석동현·김홍일 변호사 등 총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는데요, 국헌 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공수처와 윤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으며, 윤 대통령도 중간에 40분, 종료 직전 5분간 발언권을 얻어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측은 PPT를 통해 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으며, 계엄 선포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는데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했던 혐의로 명시하면서 법정에서 1시간 가량 PPT를 통해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2차 계엄의 우려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며 공수처와 대통령 측의 법정 공방을 균형 있게 전달했는데요, 특히 양측의 입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까지 언급하며 법정 공방의 긴박감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4시간 50분의 심사 과정을 간략히 요약한 만큼, 추가적인 해설을 통해 공수처가 2차 계엄의 우려를 강조한 이유나 대통령 측이 주장한 법원 관할 문제등 공수처와 대통령 측의 입장 차이를 더 다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리 공방의 핵심 논점인 '국헌문란' 인정 여부와 '계엄 선포의 통치행위' 관련하여, 국헌문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치행위가 왜 사법 판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설명은 간단하게라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9일 뉴스특보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구속됐는데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구치소 구금 이후 두문불출했던 윤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입장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 또 내란죄라는 윤 대통령의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공수처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 건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비상계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지가

관건이라며, 불응시 공수처는 강제구인이나 옥중조사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500쪽이 넘는 주요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 등도 넘겨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로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10일간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 10일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경우 송부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을 다루며 사건의 전개와 주요 쟁점을 전했습니다. 방송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헌정사적으로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공수처의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인 '내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해 공수처가 제시한 핵심 증거의 간략한 설명도 필요해 보였는데요,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언급된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을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받은 1500쪽 분량의 신문조서에 담긴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의심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간략한 소개가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이번 구속이 국민과 국가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도 간단히라도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뉴스투데이에서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 17일 1월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계엄 사태에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 연례협의때와 동일한 2%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곳은 미국이 0.5%p로 가장 높았고, 중국, 영국, 스페인 등도 올랐는데요, 반면,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국가는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IMF는 미국 성장률 전망을 크게 올리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0.1%p 올린 3.3%로 내다봤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주요 국가별 성장률 변화를 비교한 점에서 유익했는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2% 성장률 전망 유지가 탄핵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간단히 언급할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과 중국과 유럽 주요국의 변동요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이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뉴스투데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며,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파원은 그곳이 백악관과 의회의사당 그리고 실내 행사가 열리고 있는 아레나와 모두 근접한 워싱턴 한복판이라면서, 주요 진입로는 여전히 통제돼 있고 건물 옥상에는 일부 저격수들도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분위기는 삼엄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트럼프 취임을 축하하는 인파는 거리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20일 정오 의회 의사당 중앙 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

를 통해 집권 구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취임사는 30분가량 진행됐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부활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기는 지금 바로 시작된다면서, 오늘부터 미국은 변성할 것이고 전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바이든 행정부 집권기간 미국 정부가 신뢰를 잃고 위기에 빠졌다면서, 자신은 대선 압승을 통해 쫓겨났고 비로소 민주주의와 자유를 되찾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불의의 총격을 받고도 살아난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행정명령에 포함될 주요 구상을 밝혔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줄곧 강조했던 국경 문제에 대해 남부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 조치 등 강력한 국경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한편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던 그린 뉴딜과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다른 나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동시에 파나마 운하도 되찾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오늘 취임사에서는 한반도 정책이나 북한, 또 취임 전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백악관으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후 3차례의 취임식 무도회에 참석하며 취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미국 정치의 주요 전환점을 알리고 있는데요, 생생한 현장 분위기 전달과 함께 주요 정책 공약을 요약하여 시청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행정명령 구상의 배경과 목표는 앞으로 보도를 통해서라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와 불법 이민자 송환 조치가 미칠 영향과,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그린 뉴딜과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는데요, 이로 인해 환경 정책이나 에너지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멕시코만 명칭 변경이나 파나마 운하 회복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비판적 시각도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및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약이 취임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배경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5년 1월 5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1월 12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1월 19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1월 26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